

경제관계장관회의

25-6-2

(공개)

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

2025. 9. 15.

관계부처합동

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(요약)

I 검토 배경

- 농산물은 부패·감모 등 기본 특성 외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*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
 - * '23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.2%,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(美 68.9%, 日 51.5%)
- 주요 유통경로*인 공영도매시장('23년 경유율 50.5%)은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는 복잡한 거래구조, 주체 간 경쟁 부족 등 한계
 - * 유통경로 변화('03 → '23) : 도매시장(78.3% → 50.5), 대형마트(6.1 → 27.0), 산자·소비자 직거래(12.8 → 17.1)
 - 아울러 도매시장 유통 주체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대비 출하자 지원, 물가 안정 등 공익적 역할이 미흡한 상황
- 유통경로 단축, 물류 최적화가 가능한 온라인도매시장('23.11월~)은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, 현재 활성화 초기 단계
-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에 따른 공급 불안 가중,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 요인으로 인해 장·단기 가격 변동성도 높은 상황
 - 가격 변동의 근본 원인은 생산 변동에 있으나,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·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 경매제도 변동성 유발 요인

II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본 방향

- ◇ 생산자,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
 - (구조) 오프라인 도매시장(다단계·경매) 거래 중심에서 단계 축소 및 다양한 거래 방식의 온라인으로 전환
 - 기존 도매시장은 거래 방식 전환(경매 → 예약거래)과 함께 거래 주체(도매법인·중도매인)의 공공성 강화 병행 추진
 - (소비) 과거 정보(경락 가격 등) 제공 중심에서 생산·유통·가격 통합 정보 제공
 - (생산) 사후적 시장개입에서 벗어나 사전 면적 및 공급 관리로 혁신

Ⅲ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

1 비전 및 목표

비전

**생산자·소비자 모두 만족하는
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대한민국 스마트 농산물 유통**

목표 (~'30)

- ◇ 배추·사과 등 주요품목 도·소매 가격 변동성 50% 완화
 - 일별 경락 가격 : ('20~'24) 42% → ('25~'30) 21 이하
 - 연도별 소비자가격 : ('20~'24) 20% → ('25~'30) 10 이하
- ◇ 농산물 유통비용 10% 절감
- ◇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: ('25) 1조 원 → ('30) 7조 원

4대 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 방향

①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

- ① 농산물 유통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
- ②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·물류 효율성 제고
- ③ 디지털 기반 산지-소비자 온라인 직거래 확대

② 도매시장 경쟁 촉진·공공성 제고

- ① 평가 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
- ② 출하 가격 보전 등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
- ③ 전자송품장 의무화 등 가격 변동성 완화

③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

- ① 가격·유통 정보 제공 확대로 합리적 선택 지원
- ②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

④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

- ①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
- ② 민·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
- ③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
- ④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

①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·물류 전면 혁신

[1-1] 농산물 유통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

-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('25,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도매유통 6% 취급 → '30, 50)
 -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(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 요건 삭제),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(물류비·관측 비용 등 선택) 제공 등 활성화 기반 조성
 -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*, 분쟁조정 및 산지 관리 등을 위한 거래 중개인 육성 등 온라인도매시장 기능 고도화

* 정가 거래 중심 → 예약거래 활성화, 경매·역경매('26) 및 다품목소량 거래('29) 기능 구축

[1-2]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·물류 효율성 제고

-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APC 확충·고도화(~'30, 300개소)
 - 주요품목 상품화 공정 최적화 표준모델(현 10개 품목 → 45) 개발,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생산·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
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팰릿 등 물류기기 운영·관리 고도화
 - 산지 조직 물류기기 RFID 활용 표준모델* 보급, QR코드 등과 연계한 생산·유통 이력 및 재고관리 자동화 실증 추진('26, 시범 2개소)

* 입고 정보 자동 관리, 실시간 재고 위치 파악 등 데이터 기반 APC 관리 체계화

[1-3] 디지털 기반 산지-소비지 온라인 직거래 확대

- 온라인 전문 셀러*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
 - *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
 - 농가에게는 온라인 셀러 정보, 농산물 유통 컨설팅 제공,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, 맞춤형 물류비 등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('26)
-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, 물류비 지원

② 도매시장 경쟁 촉진·공공성 제고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

[2-1] 평가 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

-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, 신규법인 공모 등 농안법 개정 추진('25.下)
 - * 지정취소 연계 도매법인 평가 체계 개편 및 평가위원회(생산자·소비자 참여) 구성('26~)
- 거래 규모 등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 신규 도입('27)
-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은 경매 장소에서 물류거점으로 기능·역할 전환

[2-2] 출하가격 보전 등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

- 경매 물량 집중 등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(가칭)출하 가격 보전제* 도입 및 공익기금 조성(농안법 개정)
 - *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재원 마련, 평년 하품(下品) 가격 등을 고려한 출하비용(운송·바박스비 등) 보장
-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한 도매법인 위탁수수료를 조정·인하* 추진
 - * (예)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환급 또는 차년도 수수료 일부 인하 등

[2-3] 전자송품장 의무화, 예약거래 확대 등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

- 주요품목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('26~, 계도기간 1년, '27 가락시장 100%), 사전 반입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('27)
-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예약형 정가·수의매매* 활성화('24, 5.4% → '30, 25)
 - * 시장 반입 전 거래조건(물량·가격 등) 협상 후 매매, 농업인은 조건에 따라 출하 여부 선택

③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

[3-1] 가격·유통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합리적 소비 지원

-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, 판매처별 가격,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* 및 보급('26)
 - * 위치 기반 매장별 가격 비교, 제철 농산물 소비 정보 등 우선 제공('26) → AI 활용 고도화 추진
-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인에게 생산·작황 정보, 도·소매 가격,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('28)

[3-2]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

-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,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*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및 협력·제휴 모델 육성 등 지자체 단위 로컬푸드 활성화
* (예시) 공급 과잉 예상 품목을 타 지역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스 마련 등
- 도농 상생 장터* 운영(연 10개소), 스마트팜 연계 잎채소 생산·판매('26, 농협 시범) 등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 확충
* 소비지인 도시는 장소를 제공, 산지인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

④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

[4-1]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

- 수급 관리계획(생산자·정부)에 따른 사전 재배면적 조정·관리 체계 구축
-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 확보* 및 과수·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(~'30, 과수 100개소, 시설채소 20) 등 신규 산지 육성·발굴
*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,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(18ha, '25~'27)

[4-2] 민·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

- 병해충·이상기후 대응 농가 자율방제에서 민·관 협업 선제적 방제*로 전환
* (현행) 병해충 발생 농지에 한정 → (개선) 병해충 발생 농지 + 인근 농지까지 사전·사후 방제
- 냉해·태풍·폭염 등 대비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 확충 지원
* 지원 현황 및 계획(과수, ha) ('24) 889 → ('25) 2,000 → ('26) 2,000

[4-3]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

- 출하 조절 품목 확대(사과·배 → 노지채소) 및 시설 확충, 계약재배 일정 물량 수매비축 사전 계약 등 비축 역량 제고
- APC 역할을 산지 작업반 구성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대응,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 체계 구축

[4-4]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

-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, 통합조직 출하 농협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등 품목 대표 전문 판매조직으로서 생산·유통 통합조직 역할 강화
- 계약재배 활성화 등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·추진('26~'30년)

순서

I. 검토 배경	1
II. 농산물 유통 개선 과제	2
III.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	4
1. 기본방향	4
2. 비전 및 목표	5
3. 세부 추진방안	6
①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	6
② 도매시장 경쟁 촉진·공공성 제고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..	8
③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 ...	9
④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·유통 기반 구축 ..	11
IV. 과제별 추진 일정	14

I. 검토 배경

-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에 따른 기후플레이션* 현실화 등 농산물 공급 불안 심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동성 확대
 - *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(기후+인플레이션)
 - 재배 적지 변화·축소, 작황 불안정 등으로 출하 시기 및 물량 변동이 확대되고, 이는 가격 급등락으로 연결
 - 우리나라는 도매시장이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으나, 산지 규모화 진전 등으로 도매시장 역할은 축소*되는 경향
 - * '03년 대비 '23년 도매시장 비중 감소(78.4%→50.5), 산지-소비자 직공급 비중 확대(7.2→29.7)
 - 현재 유통구조는 복잡한 유통단계, 가격 변동성 문제 등으로 생산자,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
 - 유통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도매시장 제도 개선 정책 중심으로는 가격 안정, 물류 비효율 등 근본적인 유통구조 문제 개선에 한계
 - 타 산업 분야는 경쟁력 제고 핵심 수단으로 ICT 기술 적극 활용,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관점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전략적 기회요인
 - 정부는 경쟁 촉진 등 규제 완화*를 통한 도매시장 중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출범·운영('23.11월~) 중
 - * 산지 조직 직접 판매 가능, 도매법인 제3자 판매 및 중도매인 산지 직접 거래 허용
 - 현재 초기 단계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 전반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체계 등 인프라 정비 필요
- ◇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·유통 전 주기를 연계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유통·물류 체계로 대전환

Ⅱ. 농산물 유통 개선 과제

1

높은 가격 변동성

- 농산물 가격은 수요-공급에 따라 결정되며, 재배면적·작황 변화에 따른 생산 변동이 증장기 가격 변동성(연도별, 작기별)에 주 영향
 - 특히, 농산물 생산의 뚜렷한 계절성, 저장성 부족 등 공급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 변동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특성
 - * '23년 냉해·탄저병 등 발생으로 사과 생산 전년비 30.3% 감소, 도매가격은 전년비 62% 증가
 - 재배면적 변동 및 이상기후 등 생산 기반 불안과 함께 고령화·농업 인력 감소 등 현장 여건 변화는 공급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
 - * 전체/농가인구 : ('23) 5,177만명/209 → ('33p) 5,102/174, 고령화율(전체/농업) : ('33p) 28%/56
- 가격 변동성의 근본적 원인은 생산량 변동에 있지만, 도매시장 경매제는 단기 가격 불안(일별, 주별)을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
 - 경매제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은 시장 내 수요와 당일 반입 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급 불일치 시 단기 가격 변동성 발생 불가피
 - 도매시장 경매제 의존 비중이 여전히 높고, 수기 송품장 사용에 따른 당일 반입량 예측 어려움으로 가격 변동성 문제가 지속
 - * 도매시장 상장 물량 중 경매 비중 84.1%, 전자송품장 사용 비중 13.6%

<여름배추 연간 재배면적 및 가격 변동('00~'23)>



<가락시장 일일 배추 반입량 및 경락 가격(7.1~8.15)>



2

복잡한 유통단계, 물류 비효율

- 현재 유통구조는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여 운송·하역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, 수도권 물량 집중 및 지방 역물류* 일반화
 - * 현장·전문가 등은 가락시장 반입량 중 타 시장으로 운송되는 비중이 20% 수준으로 추정
- 최종 소비지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없어 선별·소분·재포장 등 유사 기능을 여러 주체가 중복 수행하며 물류 효율화에 애로
- 유통경로 효율화, 물류 최적화가 가능한 온라인도매시장은 혁신적 대안이나, 산지·도매유통 단계 주요 유통시설 물류 기능은 낙후
 - * 온라인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통합 배송, 운송 단계 최소화 등 최적 물류서비스 제공
- APC, 도매시장 등 물류 기능은 원물 수집·분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비지 맞춤형 물류 서비스*에 한계, 산지-소비자 직접 연결 기능 미흡
 - * 단기 저장 및 상품화, 저온 배송, 통합 배송, 상품 구색 맞춤 등

3

생산자·소비자 관점에서 유통 신뢰 확보

- 생산자는 도매법인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비해 출하자 지원, 농업 분야 재투자 등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인식
 -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도매법인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와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 부재 등 경쟁 저해 요인도 개선 필요
- 소비자는 유통·가격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, 산지 가격이 하락 하더라도 소비자가격 반영 지연 등으로 체감물가가 높다고 인식
 - 단편적·분절적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에 한계,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 확충 필요

Ⅲ.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

1 기본방향

- ◇ 생산부터 도매시장·물류·소비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하여 가격 안정 도모
 - (구조) 오프라인, 상물일치 → 디지털 기반 온라인, 상물분리
- 기존 도매시장은 거래 방식 전환(경매 → 예약거래) 및 공공성 강화
 - (소비) 과거 정보 제공 중심 → 생산·유통 가격 통합 정보 제공
 - (생산) 사후적 시장개입 → 사전 면적 및 공급 관리로 혁신

①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·물류 전면 혁신

- 농산물 핵심 유통경로로 온라인도매·직거래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
- 스마트 APC 확충 등 유통·물류 효율성 제고

② 도매시장 경쟁 촉진·공공성 제고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

- 성과 평가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체제 구축
- 농가 최소 수취가격(운송비·박스비, 출하장려비 등) 보장 체계 신설·확대
- 출하 전 전자송품장 의무화로 출하 물량 관리, 가격 변동성 완화

③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

- 소비자 정보 제공 모바일 앱 개발 등 가격·유통 정보 제공 확대
-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(로컬푸드, 직거래 등)

④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

- AI 기반 수급 관리계획 수립, 적정 재배면적 확보
- 민·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 및 비축 역량 제고 등 공급 불안 대응 강화
- 생산자 조직화, 농협 역할 강화 등 산지 경쟁력 강화

2

비전 및 목표

비전

**생산자·소비자 모두 만족하는
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대한민국 스마트 농산물 유통**

목표 (~'30)

- ◇ 배추·사과 등 주요품목 도·소매 가격 변동성 50% 완화
 - 일별 경락 가격 : ('20~'24) 42% → ('25~'30) 21 이하
 - 연도별 소비자가격 : ('20~'24) 20% → ('25~'30) 10 이하
- ◇ 농산물 유통비용 10% 절감
- ◇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: ('25) 1조 원 → ('30) 7

4대 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 방향

1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

- ① 농산물 유통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
- ②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·물류 효율성 제고
- ③ 디지털 기반 산지-소비자 온라인 직거래 확대

2 도매시장 경쟁 촉진·공공성 제고

- ① 평가 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
- ② 출하 가격 보전 등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
- ③ 전자송품장 의무화 등 가격 변동성 완화

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

- ① 가격·유통 정보 제공 확대로 합리적 선택 지원
- ②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

4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

- ①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
- ② 민·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
- ③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
- ④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

전략 ①

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

①-①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

-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('25, 온라인도매시장* 전체 도매유통 6% 취급 → '30, 50)
 - *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 경유 대신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유통플랫폼
 - 더 많은 농업인·유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* 및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(물류비, 판촉 비용 등 선택) 제공
 - * (기존)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 개인·법인 사업자 → (개선) 거래 규모 요건 삭제
 - 농업인 가격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거래 방식* 도입, 소비지와의 원활한 거래 연계를 위한 거래중개인** 육성
 - * 경매·역경매 기능 도입('26), 다품목·소량 거래 체계 구축('29)
 - ** 판구매자 시스템 적응 지원(컨설팅·교육·홍보), 농가 기술 지도 등 산지 관리, 분쟁조정 등 지원
 - 성과 경영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전문 운영 주체 육성
 - * 독립 법인화 추진 등 중장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구조개선 방안 마련('26.上)
- 물류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거래 전용 농산물 특화 물류 체인* 구축
 - * 온라인 사전거래 정보 기반 상품 구색 통합 배송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거점
 - 개별 배송 대비 비용 절감이 가능한 공동 배송장 운영 우선 추진 ('26~), 비축기지와 지방 도매시장 기능 전환*을 통한 단계적 확대** 검토
 - * 자율주행 지게차, 수직 물류 등 물류 자동화·최적화 및 콜드체인 시스템 확충
 - ** 전문 물류 법인(도매법인 등 공동출자) 신규 육성, AI 기반 통합 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등

①-②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·물류 효율성 제고

-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APC 확충·고도화(~'30, 300개소)
 - 주요품목 상품화 공정 최적화 표준모델(현 10개 품목 → 45) 개발,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생산·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
 - 중소형 APC의 원활한 스마트 APC 전환을 위해 사업 개편* 추진
 - * 지원대상 : (현행) 사업비 5억 원 이상 → (개선) 5억 원 미만 + 평가 간소화
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팻릿 등 물류기기 운영·관리 고도화
 - 산지 조직 물류기기 RFID 활용 표준모델* 보급, QR코드 등과 연계한 생산·유통 이력 및 재고관리 자동화 실증 추진('26, 시범 2개소)
 - * 입고 정보 자동 관리, 실시간 재고 위치 파악 등 데이터 기반 APC 관리 체계화
 - 물류기기 전 주기* 실시간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('26년)
 - * 물류기기 이용 신청 - 재고 확인 - 입고 - 출고 - 회수 - 정산

①-③ 디지털 기반 산지-소비자 온라인 직거래 확대

- 온라인 전문 셀러*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
 - *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
 - 농가에게는 온라인 셀러 정보, 농산물 유통 컨설팅 제공,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, 맞춤형 물류비 등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('26)
 - 농가와 온라인셀러를 연계하는 전문주체(지역농협, APC 등) 육성(중장기)
- 지자체물 및 민간 온라인물 연계 온라인 판매 조직화,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, 물류비 지원

2-① 평가 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

- 도매법인·중도매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
 -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, 신규 법인 공모 등 농안법 개정 추진(25.下)
 - 상대평가 강화, 모든 지표 계량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 개편 및 생산자,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(26~)
 - 거래 금액, 재무 건전성 등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 신규 도입(27)
- 일정 조건*에 부합하는 도매시장 물류 기지화 등 기능 전환 검토 및 도매시장 광역 단위 운영 평가를 위한 (가칭)도매시장정책협의회** 구성
 - * (예시) 연 거래량 5만 톤 이하, 도매법인 영업 손실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도매시장 등
 - **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(개설자), 농업인단체, 도매법인협회, 중도매인협회 등 참여

2-② 출하 가격 보전 등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

- 경매 물량 집중 등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(가칭)출하 가격 보전제 도입(농안법 개정)
 -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 및 재원 마련, 평년 하품(下品) 가격, 생산·출하 비용 등을 고려한 농가 최소 수취가격(운송비·박스비, 출하장려비 등) 보장
- 출하자 지원 등 도매법인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 및 활용* 근거 법제화(농안법 개정)
 - * 지원 사례 : 농가 최소 수취가격 보전 등 농업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등
- 경영사업 운영 합리화로 도매법인의 농업 부문 재투자 확대 유도

-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연계 위탁수수료를 조정·인하*(’26, 가락시장 시범)
 - * (예)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환급 또는 차년도 수수료 일부 인하 등
 - 영업이익률 판단 기준, 수수료율 조정 기간 등 가이드라인 마련

2-3 전자송품장 의무화, 예약거래 확대 등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

- 주요품목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(’26~, 제도기간 1년, ’27 가락시장 100%)
 - * ’23년 시범 도입 품목(무배추, 깎마늘, 양파, 배, 팽이버섯+α) 우선 적용 → 대상 품목 단계적 확대
 - 제도기간 내 전자송품장 출하 물량에 대해 경매 우선순위 부여, 위탁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
 - 전자송품장 기반으로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(’27)
-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* 활성화(’24, 5.4% → ’30, 25)
 - * 시장 반입 전 거래조건(물량, 가격 등) 협상 후 매매, 농업인은 조건에 따라 출하 여부 선택
 - 산지 조직 예약형 거래 물량 물류기기 국비 지원 상향(10% → 30)
 - 도매법인 평가 배점 확대(6점 → 9), 중도매인 결제 자금 금리 인하(1.5% → 0.5)

전략 3

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

3-1 가격·유통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 지원

-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, 판매처별 가격,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(’26)
 - 특정 시기 제철 농산물 정보 및 위치 정보 기반 지역 내 유통 매장 가격 비교 정보 우선 제공(’26), 향후 AI 활용 고도화

-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인에게 생산·작황 정보, 도·소매 가격,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**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** 구축(28)
 - AI 기반 분석 고도화 등 **맞춤형 정보 제공**을 통해 산지-소비지 간 가격 협상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등 **의사결정*** 지원
 - * (생산자) 사전 영농계획 및 최적 출하·판매 전략 수립, (유통인) 계획적 재고·유통 관리, (소비자) 구매 적정시점 및 대체 소비 여부 판단 등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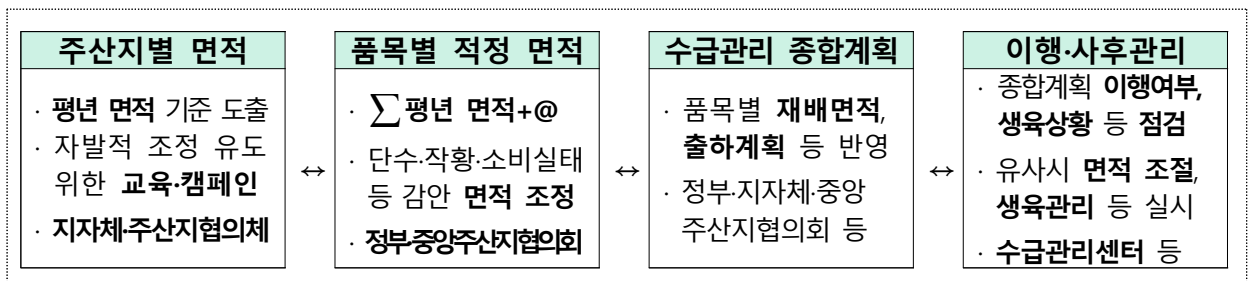
3-2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

-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 소비하는 **지자체 단위 로컬푸드** 활성화
 - 광역 단위 기획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를 총괄하는 **‘먹거리 관리센터’ 지정**(~’30, 10개소) 등 공공분야 **수급·유통 관리 기능 강화**
 - 농촌 관광, 지역문화 연계 **유형별 직매장 건립**(~’30, 8개소), 지역 유통채널 활성화를 위한 **우수 직매장 지정 확대**(25, 50개소 → ’30, 90)
 -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,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* 등 **로컬푸드 체계가 구축된 지역 간 연계 강화 및 협력·제휴 모델 육성**
 - * (예시) 공급 과잉 예상 품목을 타 지역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스 마련 등
 - 미래세대 **식생활 체험·교육과 연계한 로컬푸드 가치 홍보**, 일반 소비자 대상 **생산자·소비자단체 협업 교육 프로그램** 운영
-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**혁신적인 대안 경로 확대**
 - 도매시장 유통 주체가 유통단계를 **대폭 축소하여 농산물을 직접 판매**하는 (가칭)**상생마트** 운영(26, 가락시장 시범)
 - 도시는 장소 제공,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**도농 상생 장터** (연 10개소) 및 **도시농협별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확대**(연 2회 이상)
 - 여름철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매장 연계 **스마트팜**(민간 위탁 운영)에서 상추 등 **잎채소를 생산·판매하는 시범사업 추진**(26, 농협 시범)

4-1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

- 정부·지자체·생산자가 함께 마련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주요품목 재배면적 선제적 조정·관리
 - 수급 관리 시 생산자 참여 확대를 위한 주산지협의회 기능 강화*
 - * (기존)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조합장 중심 → (개선) 지자체, 자조금단체, KREI, 농협 등 참여 확대
 - 수급관리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 설치·운영
-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 확보* 및 과수·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(~'30, 과수 100개소, 시설채소 20) 등 신규 산지 육성·발굴
 - *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,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(18ha, '25~'27), 여름철 폭염·폭우로 인한 잎채소류 폭등에 대비 잎채소 스마트단지 육성 검토
- 농업 관측을 고도화하여 농업인의 안정 생산 지원
 - 농림위성('26.下 발사 예정)·드론촬영 자료 활용 확대, 생산 예측 모형 고도화*
 - * 기상정보 활용 단수 예측모형(마늘), 머신러닝 기법 활용 가격예측 모형(배추) 등 개발(농진청, '26~)
 - 수요 연계 공급 분석 제고를 위한 소비 관측 도입('26) 추진

< 원예농산물 적정 재배면적 관리 체계(안) >



4-2 민·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

- 병해충·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농업인 자율방제 중심에서 민·관 협업 선제적 방제* 강화
 - * (현행) 병해충 발생 농지에 한정 → (개선) 병해충 발생 농지 + 인근 농지까지 사전·사후 방제
- 영양제 공급 등 생육 지원 및 농가 기술 지도 확대
- 냉해·태풍·폭염 등 주요 재해예방, 생육환경 제어 등을 위한 농가 단위 기반 시설 확충 지원
 - * 지원 현황 및 계획(과수, ha) ('24) 889 → ('25) 2,000 → ('26) 2,000
- 관내 농업인 대상 기상재해 조기경보(농진청) 즉시 전달체계 구축
- 기후적응형 재배 및 피해저감 기술개발 R&D 추진(농진청)
 - 개발 기술 활용 매뉴얼 마련, 품종 보급에 따른 인센티브* 제공
 - * 계약재배, 정부 구매, 재해예방 시설 지원,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

4-3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

- 출하 조절 품목 확대(사과·배 → 노지채소) 및 시설 확충, 계약재배 일정 물량 구매비축* 사전 계약 등 비축 역량 제고
 - * 상시 수급 불안기 도매시장 방출, 김치업체 등 가공업체 원료 공급용(사전계약) 등으로 활용
- 봄배추 저장 연장 기술(CA, MA) 실증 등 정부 비축 확대로 수급조절 강화
- APC 역할을 산지 작업반* 구성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대응,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 구축
 - * 농촌인력중개센터(내국인), 공공형 계절근로자(외국인) 등 활용 시·군 단위 작업반 구성, 시·군 내 농협조직 간 작업 인력 공동 활용 등 효율적 인력 관리 체계 구축

4-4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

- 품목을 대표하는 전문 판매조직으로서 생산·유통 통합조직 역할 강화
 -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(~'30, 3,000개소 이상) 및 영농 지도·신품종 보급 등 역량 강화 지원
 - 기초생산자 조직과 통합조직 간 계열화 강화를 위한 출하규약* 신설, 계약재배 손실 보전 안전장치** 마련 등 산지 조직화 기반 강화
 - * 기초생산자조직 가입 희망 조합원 대상 전속출하 의무 부여, 실적 연계 자금 배정 등
 - ** 수급안정지원사업 적립금 활용 손실 일부 보전, 농산물 전용 계약이행보증보험 개발 검토 등
 - 전문 품목 취급액 등 통합조직 요건 상향*, 통합조직 출하 농협에 대한 공선비 등 자금 배정 권한 부여 등 통합조직 책임·권한 확대
 - * 전문품목 취급액 기준 상향, 전체 품목 취급액 대비 전문품목 취급액 비중 하한 신설 등
- 도시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기능·역할 재정립
 - 도시 조합 경제사업 이행기준(판매실적, 경제 매출액) 강화, 도농 상생 사업비 신설* 등 도시 조합의 경제사업 기여도 제고
 - * (현행) 기금 적립, 신용사업 매출액의 1.5%(年 5~600억원) → (개선안) 사업비 납부, 3% 이내
 - 산지 조직 통합마케팅 확대, 계약재배 활성화 등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·추진('26~'30년 5개년 계획, 매년 평가·환류)
 - * 생산자조직 전속 출하액, 온라인도매시장 실적 등 유통·판매 지수를 핵심지표로 조정
-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생산자와의 상생 강화
 -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수입(TRQ 등) 정책에 참여하고, TRQ 수입에 따른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검토
 - *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후 참여단체 선정(양파,마늘 등 협의중) → 희망품목부터 단계적 도입

IV. 과제별 추진 일정

추진과제	일정	소관
①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		
① 농산물 유통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		
○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	'26	농식품부
○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 제공	'26	농식품부
○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 및 거래중개인 육성	'26	농식품부
○ 온라인도매시장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 마련	'26.上	농식품부
○ 온라인 거래 전용 농산물 특화 물류 체인 구축	'26~	농식품부, 지자체
②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·물류 효율성 제고		
○ 스마트 APC 확충	~'30	농식품부
○ 스마트 APC 상품화 공정 최적화 표준모델 개발	'26	농식품부
○ AI 기반 생산·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	'27	농식품부
○ 물류기기 생산·유통 이력 및 재고관리 자동화 실증 추진	'26	농식품부
○ 물류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	'26	농식품부
③ 디지털 기반 산지-소비지 온라인 직거래 확대		
○ 온라인 전문 셀러 연계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	'26~	농식품부
○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 교육 및 지원	'26	농식품부
② 도매시장 경쟁 촉진·공공성 제고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		
① 평가 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		
○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등 농안법 개정	'25.下	농식품부
○ 도매법인 평가 체계 개편 및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	'26~	농식품부
○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 신규 도입	'27	농식품부
○ 도매시장 평가 위한 (가칭)도매시장정책협의회 구성	'26	농식품부
② 출하 가격 보전 등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		
○ (가칭)출하 가격 보전제 도입	'26	농식품부
○ 공익기금 조성 및 활용 근거 법제화	'26	농식품부
○ 위탁 수수료율 조정·인하	'26~	농식품부
③ 전자송품장 의무화 예약거래 확대 등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		
○ 주요품목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	~'27	농식품부
○ 도매시장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	'27	농식품부
○ 예약형 정가·수의매매 활성화	'26~	농식품부

추진과제	일정	소관
③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		
① 가격·유통 정보 제공 확대로 합리적 선택 지원		
○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	'26	농식품부
○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	'28	농식품부
②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		
○ 먹거리 관리센터 지정 확대	'30	농식품부, 지자체
○ 농촌 관광, 지역문화 연계 유형별 직매장 건립	'30	농식품부
○ 우수 직매장 지정 확대	'30	농식품부
○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접판매 경로 확대	'26	농식품부
○ 물가변동 대응 매장 연계 스마트팜 시범운영	'26	농협
④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		
①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		
○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 설치·운영	'26	농식품부, 농협
○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 확보	'26~	농식품부
○ 과수·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	'26~	농식품부
○ 농업 관측 고도화 및 소비 관측 도입	'26~	농식품부, 농진청
② 민·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		
○ 민·관 협업 선제적 방제 강화	'26~	농식품부
○ 농가 단위 재해예방 시설 확충 지원	'26~	농식품부
③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		
○ 출하 조절 품목 확대 및 시설 확충	'26~	농식품부
○ 비축 역량 제고	'26~	농식품부
○ APC 역할 확대 및 일관 출하체계 구축	'26~	농식품부
④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		
○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(3,000개소)	~'30	농식품부
○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·추진	'26~	농식품부
○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입(TRQ 등) 정책 참여 확대	'26~	농식품부